

코로나19 대응...광주 545억·전남 1416억 추경 신청

광주시, 격리병원 피해 보상·소상공인 지원 등 22개 사업 전남도, 음압 격리병실 확충·음압 구급차 도입 등 21개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각 500억원대와 1400억원대의 추경 사업을 정부에 신청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에 맞춰 감염병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모두 22개 사업, 545억6000만원 지원을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시설이 통째로 격리된

21세기 병원 등 2개 병원 피해 보상(38억원), 소방학교 생활관 등 생활 치료센터 지정·운영(26억원), 국가 지정 병상 확대(20억원), 생계 급여 지급 상공권 지원(199억원) 등이 포함됐다. 1대뿐인 음압 구급차 확충(6억원), 요양보호사 대체 인력 지원(1억3000만원),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11억원) 등도 요청했다.

시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30억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20억원), 수출 진흥자금 지원(20억원),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88억3000만원)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했다. 택시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음식점 방역, 문화산업 기업 지원 등도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는 오는 17일까지 임시국회 중 추경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지만, 규모나 세

부 사업 등에 이견을 보여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사전연설에서 "정부 추경 사업을 신청하고 지역 경제 대책 상황실, 경제고용 진흥원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골목상권 특별보증 규모를 432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겐 144건, 25억 4000만원을, 중소기업에겐 230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기업 및 코로나 피해기업에겐 300억원의 특별보증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21개 사업에서 모두 1416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우선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13개 사업, 1038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의료원 음압격리 병실 확충(32개실) 사업 240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 보상금 457억원, 음압 구급차(3대) 도입 6억6000만원, 전남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 시스템 구축 60억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확대 지원 147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개 사업, 269억원 지원을 위해 건의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

지원 8억원, 전통시장 지원 23억2000만원, 어업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200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자금 이차 지원 5억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15억원, 노후 택시교체비 대출이자 지원 18억원 등이다. 민생·고용안정과 관련해 입원,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3억6000만원 지원도 요청했다.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지원사업비 10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부 "코로나19 확산세 '정체' 평가...안심 상황은 아냐"

전국 다중이용시설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주의 각별 확진자 감소 속 중국 제외한 '제3국' 유입 차단이 관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방역의 성패는 중국 외 '제3국'을 통해 유입될 코로나19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오늘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확산추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는 빠르게 증가하던 확산 추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여전히 많은 확진환자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확진자 수는 지난 일요일의 뒤된 검사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소보다 검사여파가 적은 6000여건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며칠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513명으로, 전남보다는 131명 증가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지속

해서 감소했으며, 10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달 25일 이후 2주 만이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신규 확진자는 줄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도 산발적 지역감염 위험은 여전히 있다고 진단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대구·경북에서는 여전히 1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환자들로 인한 새로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천지나 (정도)대남병원과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땀한땀 정성으로 만든 면 마스크 10일 오전 광주시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한국신문협회 성명...대행수수료율 인하 등 4개항 요구

한국신문협회는 10일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8년 711억원, 2019년 819억원, 2020년 840억원으로 급증세라며 “그러나 언론재단의 올해 미디어 지원은 넉넉히 잡아도 129억원, 수수료 수입의 15.4% 수준에 불과해 주객전도(主客顛倒)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할 뿐 아니라 언론재단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는지 수수료 수입으로 언론지원보다 자체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신문협회 회원사 전 발행인이 연명으로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 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민원 개선 건의

광주시가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으로 드러난 현장의 문제점을 모아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나섰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첫날인 지난 9일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시간을 알 수 없고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여전히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 등을 호소했다. 아이와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대리 구매 기준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도 빚뻗었다. 특히 아이를 대신해 구매하는 경우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와 구매하는데 부모의 해당 요일과 아이의 해당 요일이 다를 경우 부모가 여러 번 찾아와야 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4·15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투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 신고 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이다.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각각 확인하게 된다.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자 고수익법.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7:00~9:00
- 수 강 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방과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49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